

20년공사, 고통도 보람도 함께 했던 마량항 건설

# 지역사회 기반조성에 기여

金 英 吉 〈金光企業(株)現場 代理〉

**본**  
항은 전라남도 강진  
군 마량면 마량리에  
위치한 제1종 어항  
이다.

어선의 안전정박과 어획물  
양륙에 원활을 도모하고자  
'92년말까지 상방파제100m,  
중방파제170m, 하방파제  
100m, 동방파제270m, 중방  
파제132m, 물양장축조  
270m, 물양장하부196m, 선  
착장30m를 시공한데 이어 금  
회 중방파제상부150m, 물양  
장상부196m, 등대2기, 석산  
복구1식을 끝으로 마량항 건  
설공사는 마무리가 된다.

강진읍에서 약25km지점에  
위치한 마량항은 완도군 고금  
도와 경계를 이루며 조약도,  
평일도, 생일도를 잇는 중심  
지로서 어민의 소득증대와 지

역사회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  
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1971년 제1종 어항으로 지  
정된 이래 1973년 개발에 착  
수하여 1993년 마량항 완공단  
계에 이르기 까지는 20년이  
걸린 셈이다.

## 사석투하때 큰 곤혹겪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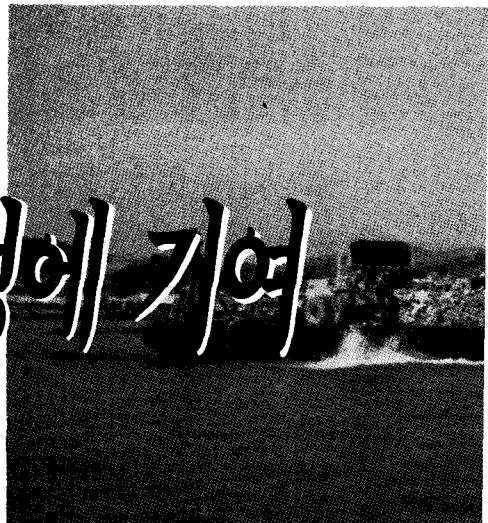
사항만공사에 대한 어려움  
은 항만공사를 경험한 사람이  
라면 누구나 다 겪어 보았으  
리라 생각이 된다. 다른 현장  
에 비하면 그렇게 큰 어려움  
이 없이 시공해 왔으나 마량  
항 건설을 하면서 몇가지 어  
려움이 있었다면 동방파제 초  
기 사석을 투하하는 과정에서  
첫째는 빠지를 고정시키기가  
어려웠고 둘째는 센터 지점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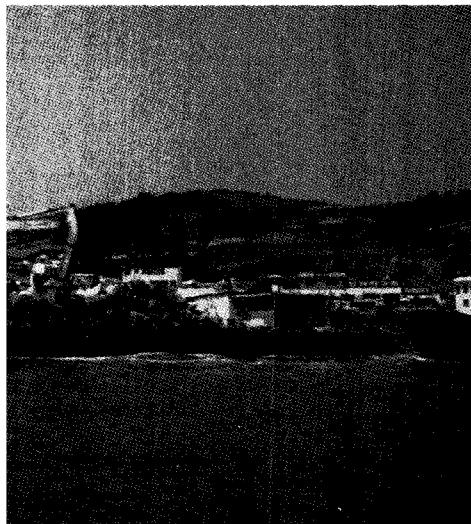
사석을 투하 했지만 물살에  
떠밀려 투하한 사석은 센터  
지점을 많이 벗어나 버렸고  
셋째는 잠수 작업을 하는데  
물살에 떠밀려 고르기 하기가  
어려웠었다.

바로 앞 정면으로 고금도가  
있어 파도는 많이 없지만 평  
일도에서 신지도 쪽으로 세차  
게 밀어닥친 물살 때문에 곤  
욕을 치룬 것은 다시한번 자  
연의 섭리에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다.

결국 항만공사는 자연과의  
싸움이고 보다 좋은 품질, 완  
전한 공사를 마무리 하기까지  
는 자연의 섭리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시대가 바뀌고 시간이 흐르  
면서 건설공사에서의 노동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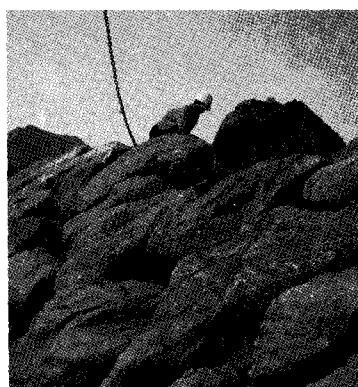


력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은 더해만가고 언제부터인가 쉽게 돈벌어 편하게 살아 가려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또한 노동인력 부족과 기술력 저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레미콘 품귀현상으로 인한 작업중단과 골재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은 어느 현장이나 다 겪었던 바 콘크리트 품질관리에 소홀했던 점도 없지 않다. 물론 콘크리트의 성질을 모르는 기술자는 없을 것이다. 시공기술 또한 상당한 수준까지 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때 보급되지 않은 재료 때문에 고도의 품질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것도 묵인 할 수 없을 것이다.

마량항을 건설하는데 있어 주민들의 건의 사항 또한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주

민들의 요구사항은 많았지만 그에 따르는 예산은 적고 대화로서주민들을 설득시켜 온지도 어언 20년이 걸린 지금 완공단계에 이르러서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만족시켜 준 셈이다. 완공단계에 이르러 기술자의 입장에서 볼 때 두 가지가 무척 아쉬움이 남는다. 주민들 역시 마찬가지다. 선착장을 처음 시공할 때만



해도 3척에 불과했던 도선배가 지금은 8척에 이르러 무려 2배이상이 늘어난 셈이다.

선착장이라야 30m에 불과 한데다 3척이 같은 시간에 도선하는 때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물양장 횡계단을 종계단으로 설계 시공 했었더라면 더 영구적이고, 튼튼한 구조물이 될 수 있었을 텐데 횡계단으로 마무리 할 수 밖에 없었던 것 또한 시공면으로나

경제적인면 영구적인 면에서 볼 때 좀더 연구해 볼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싶다.

## 마지막 순간까지 혼신의 노력

'93년까지 82억원의 투자로 마량항은 제1종 여항으로서의 손색이 없는 여항으로 발전하여 주어종인 둠 장어 가자미 낙지 등 어민의 소득증대와 완도를 잇는 중심지로서 생필품공급 유류공급이 낙도지역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아니라 상업지역이라 불릴 만큼 낙도지역 주민들이 마량항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1973년 착공 당시만해도 쓰레기 투성이의 마량항에 방파제와 물양장이 생긴 후로 연안여업의 중심지로서 태풍기에는 각종 선박 및 시설물 파괴를 방지하게 되어 어업시설 충족은 물론 어민의 재산보호와 앞으로의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대가 된다.

그동안 마량항 건설공사에 참여해 주신 수산청 감독관님을 비롯 금광기업(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93년 시공에서도 저희 능력을 십분 발휘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마량항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각오이다.◆